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이 30%를 상회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75세 미만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거주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에서 농림어업비중과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가교일 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1. 들어가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제3의 인생을 설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경제활동참여는 노후의 소득창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능력 발휘를 통한 자아실현 등의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도 노년기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을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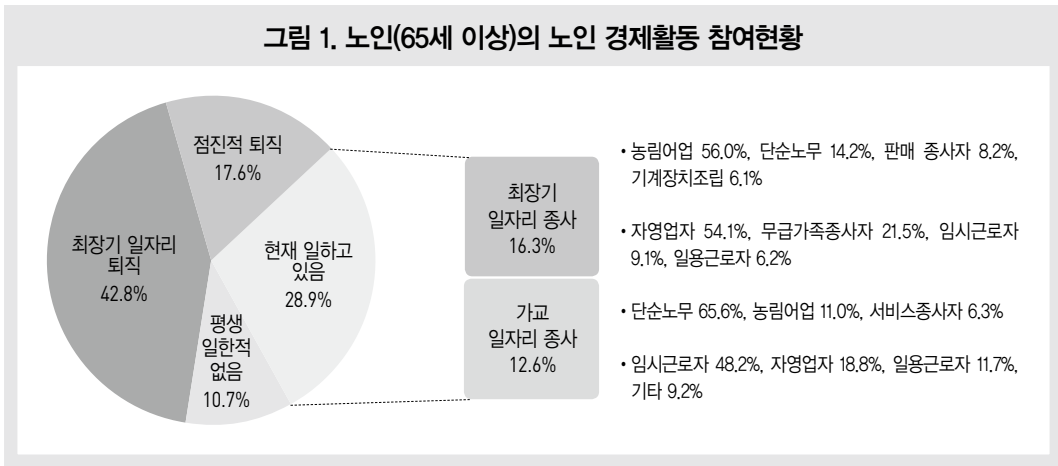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종사 직종과 종사상 지위 등에 따른 근로조건과 근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장기 일자리 특성과 점진적 은퇴과정에서의 노인의 가교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노년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1) 일반 현황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8.9%가 경제활동에

그림 1. 노인(65세 이상)의 노인 경제활동 참여현황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노인은 10.7%, 과거에 일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60.4%(최장기 일자리 퇴직자 42.8%, 점진적 퇴직자¹⁾ 17.6%)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는 노인 가운데 최장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6.3%이었으며, 12.6%는 생애 최장기 일자리에 은퇴 후 가교일자리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5.5%(임금근로자의 38.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애 최장기 일자리에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일자리 특성으로 농림어업 종사자(56.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54.1%)와 무급가족종사자(21.5%)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두고 가교일자리에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가 65.6%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임시근로자 48.2%, 자영업자 18.8%, 일용근로자 11.7% 등으로 주로 경비·수위·청소(36.7%), 농림어업(12.9%), 공공·환경(15.1%), 가사·조리·음식업종(12.1%)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8.9%로 2004년 30.8%, 2008년 30.0%, 2011년 34.0%에 비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남성은 54.2%, 여성은 45.8%이며, 평균 연령은 71.5세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해 전 연령대(5세 기준)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65~69세와 70~7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각각 7.3%p, 6.8%p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 근로노인의 43.5%는 65~69세에 해당되

1) 점진적 퇴직은 일생동안 가장 오래 다닌 직장(최장기 직장)을 그만둔 이후 다시 근로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

그림 2.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04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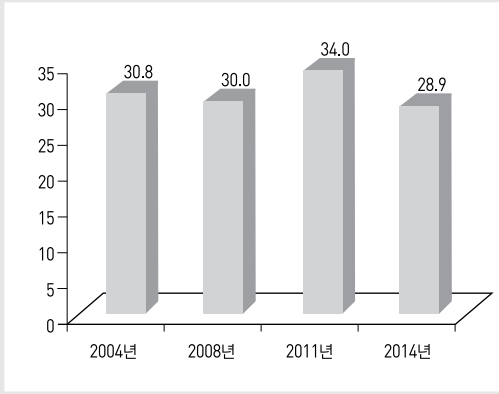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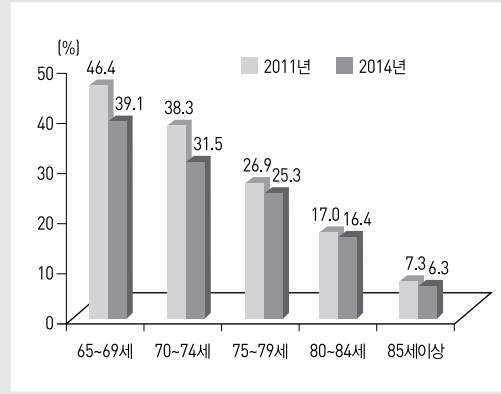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11년, 2014년)



며 70~74세 노인은 29.8%로 근로노인의 약 3/4은 75세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63.2%는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36.8%는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노인과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는 노인은 각각 79.3%과

8.6%로 소득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노인이 약 88%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58.8%는 현재 일 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약 14.1%는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 자리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낮은 급여수준

표 1. 연령대 및 거주지역별 노인경제활동 참여현황

(단위: %, 명)

구분	백분율	동부	읍·면부	계(사례수)
65~69세	43.5	69.8	30.2	100.0(1,292)
70~74세	29.8	62.6	37.4	100.0(884)
75~79세	18.0	53.5	46.5	100.0(536)
80~84세	7.1	51.9	48.1	100.0(210)
85세 이상	1.6	52.1	47.9	100.0(48)
계	100.0	63.2	36.8	100.0(2,970)

주: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와 맞지 않은 일자리 30.4%,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9.2% 등으로 분석되었다.

2) 경제활동 참여노인의 주요 특성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은 36.6%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어업 종사 비중도 36.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52.9%에서 36.4%로 급감한 반면, 단순노무자 비중은 26.1%에서 36.6%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율도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종사 직종 변화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판매종사자(12.2%→7.7%)와 농림어업

종사자(20.9%→15.3%)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8%→6.6%)와 단순노무종사자(43.4%→49.1%)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임시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2011년 81.7%에서 2014년 72.7%로 감소하였으며, 단순노무종사자는 10.5%에서 15.2%로 높아졌다. 즉, 지난 3년간 동부 및 읍·면부 거주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종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69.3세와 69.2세로 가장 낮았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평균연령은 72.9세로 가장 높았다. 주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보면, 관리자 와 전문직 종사자의 근무일수(평균 4일)와 근무시간(관리자 23.7시간, 전문직 종사자 25.6시간)이

표 2. 경제활동참여 노인의 종사 직종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
2011년도(%) ¹⁾	1.0	2.0	0.3	4.3	7.4	52.9	3.2	2.8	26.1	100.0
2014년도(%) ²⁾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100.0
평균연령(세)	70.2	69.3	69.2	69.9	70.7	72.9	68.2	67.9	71.6	71.5
주당 근무일수(일)	3.9	4.1	4.9	5.2	6.0	5.7	4.8	4.7	4.4	5.0
주당 근무시간(시간)	23.7	25.6	34.5	36.7	51.1	31.3	40.2	41.0	30.1	32.7
현직업 종사기간(연)	19.4	18.9	10.7	16.3	24.0	42.3	31.0	22.5	6.2	23.3
만족도(5점 기준)	3.9	4.2	3.7	3.7	3.2	3.3	3.5	3.7	3.6	3.5

주: 1)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2) 경제활동 참여노인은 3,583명임.

가장 적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은 주 5.7일, 31.3시간으로 근무일수는 많지만 근무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판매종사자는 주 6일, 51.1시간 근무하여 타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직업 종사기간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42.3년으로 절대적으로 길었으며, 다음으로 기능직 종사자 31.0년, 판매직 종사자 24.0년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4.2점)와 관리직(3.9점)의 근로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판매종사자(3.2점)와 농림어업 종사자(3.3점)의 근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비·수위·청소 관련 업종이 19.3%, 운송·건설 관련 업종이 10.8%로 나타났다. 운송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이 69.0세로 가장 낮은 반면 공공·환경 관련

일을 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이 73.7세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판매 및 영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9.4시간으로 평균 6.0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와 공공·환경 관련 종사자는 주 5일 이상을 일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은 각각 31.0시간과 29.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사·조리·음식 관련 및 경비·수위·청소 업종 종사자의 근로만족도가 타 직종에 비해 높고, 농림어업, 판매·영업, 그리고 공공·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노인의 근로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가 38.7%,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와 비교할 때, 임시근로자가 8.5%에서 26.2%로 급증하였으며, 상용근로자(3.3%→6.1%)와 고용주(1.3%→1.6%) 비중도 소

표 3. 65세 이상 노인 참여일자리의 주요 내용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농림어업	경비·수위·청소	가사·조리·음식	판매·영업	운송·건설 관련 ²⁾	공공·환경 관련 ³⁾	기타 ⁴⁾	계(평균)
전체(%) ¹⁾	38.3	19.3	8.2	6.8	10.8	7.6	8.9	100.0
평균연령(세)	72.9	70.9	70.4	70.5	69.0	73.7	69.9	71.5
주당 근무일수(일)	5.6	4.2	4.6	6.0	4.6	5.2	4.3	5.0
주당 근무시간(시간)	31.0	34.5	28.0	49.4	37.4	24.5	29.3	32.7
현직업 종사기간(연)	41.0	5.2	7.9	23.6	21.2	5.1	19.1	23.3
만족도(5점 기준)	3.3	3.7	3.8	3.3	3.6	3.3	3.9	3.5

주: 1)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2) 운전·운송(4.4%), 택배·배달(0.4%), 건설·기계(2.6%), 생산직업(2.8%), 현장관리(0.6%)가 해당됨.

3) 환경조경(1.1%), 공공질서유지(2.1%), 폐휴지 줍기(4.4%)가 포함됨.

4) 전문직(3.5%), 행정사무직(1.2%), 문화예술(0.5%), 기타(3.7%)가 해당됨.

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47.0%→38.7%)와 무급가족종사자(19.5%→13.8%)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임시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노년기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농림어업종사자 비중의 상대적인 감소와 경비·수위·청소 혹은 조리·돌봄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노인근로자 비중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주의 평균 연령은 70세보다 낮은 반면 자영업자와 기타 직종에 속한 노인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 근무일수는 5.6일과 5.8일로 가장 높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은 36.5시간과 31.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무일수는 5.0일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45.9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였으며,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30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근로만족도는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최장기 일자리 및 가교일자리 특성

65세 이상 노인이 과거 혹은 현재에 참여한 최장기 일자리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종은 농림어업이 27.7%, 단순노무직 19.2%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자(4.7%)와 사무직 종사자(4.8%)로 근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장치기계조작 등의 직종에 근무한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전문대학

표 4. 경제활동참여노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일, 시간)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평균)
2011년도 ¹⁾	3.3	8.5	10.2	1.3	47.0	19.5	10.2	100.0
2014년도 ²⁾	6.1	26.2	8.6	1.6	38.7	13.7	5.1	100.0
평균연령(세)	68.3	71.2	70.8	69.6	72.1	71.8	73.5	71.5
주당 근무일수(일)	5.0	4.1	3.6	5.0	5.6	5.8	6.0	5.0
주당 근무시간(시간)	45.9	28.1	23.8	36.9	36.5	31.3	29.8	32.7
현직업 종사기간(년)	15.0	5.0	14.1	26.0	35.8	38.0	7.6	23.3
만족도(5점 기준)	3.9	3.8	3.3	3.9	3.4	3.2	3.2	3.5

주: 1) 2011년도 경제활동 참여노인은 3,583명임.

2)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4. 최장기 종사 직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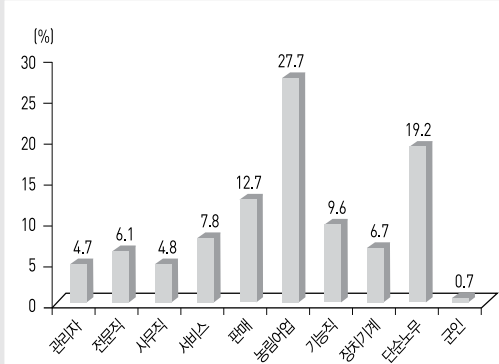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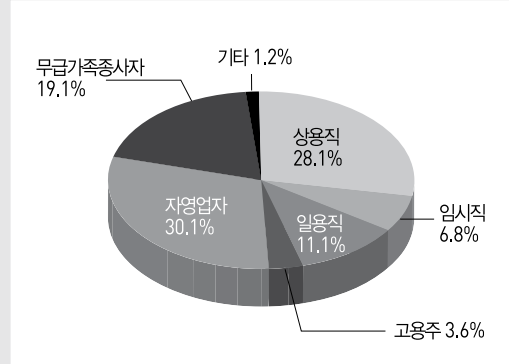


그림 5. 최장기 직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졸업 이상인 집단은 관리자 및 전문가 비중이 높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판매, 기능직, 장차기계 등의 직종은 중학교 졸업자 비중이 높으며, 농림어업 종사자는 무학인 노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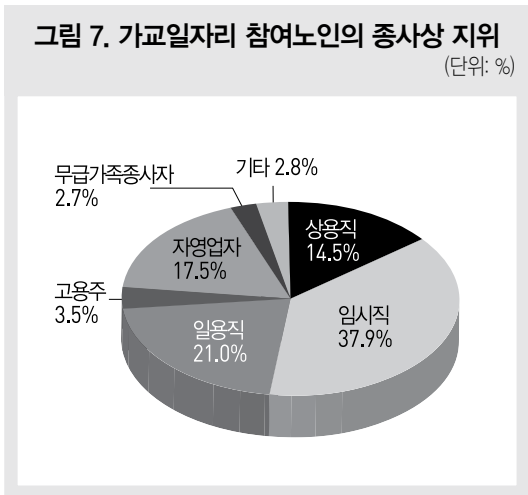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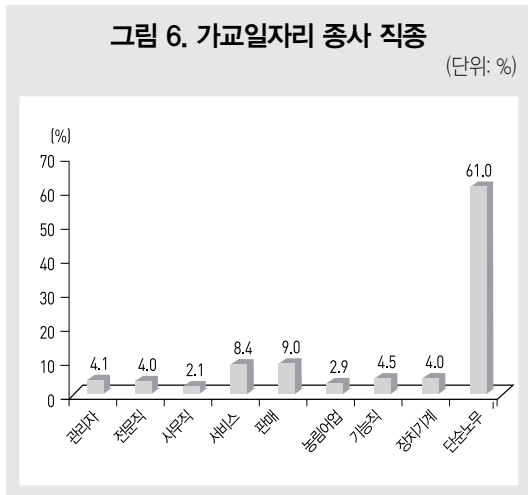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영업자와 상용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장기 직업이 임시직과 일용직인 노인도 17.9%로 나타나 저임금, 저숙련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노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상용근로자는 남성노인 비중이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노인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최장기 직업의 종사기간은 40년 이상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30년에서 40년 미만 22.3%,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6% 등이었으며, 최장기 직업의 종사기간이 5년 미만인 노인은 4.3%에 불과하였다. 최장기 직종 종사기간이 40년 이상인

노인의 직종은 농림어업이 약 66%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41.2%)와 무급가족종사자(36.0%)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새로운 일자리, 즉 가교일자리를 거쳐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교일자리 직종과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등과 같은 가교일자리 특성을 알아보았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했던 가교일자리의 주된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61.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판매종사자 9.0%, 서비스 종사자 8.4% 등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의 지위는 임시근로자 37.9%, 일용근로자 21.0%, 자영업자 17.5% 등으로 임시·일용직 취직이나 창업을 거쳐 은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비·수위·청소 관련 업종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운송 및 건설업 21.7%, 가사·조리·음식 관련 업종이 14.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장기 일자리 퇴직 이후 참여한 가교일자리의 24.6%는 정부지원



일자리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등과 같은 정부지원일자리가 노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가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28.9%는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노인의 평균 연령은 71.5세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이 30%를 상회한 것에 비해 2014년도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에 비해 급감하였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전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2011년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노인 경제활동에서 농림어업비중과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당 근무일수는 평균 5.0일이지만, 주당 근무시간은 32.7시간으로 상용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노후소득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기계발이나 여가문화활동보다는 경제활동참여 자체로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용근로자와 고용주를 제외하고 임시근로자의 근로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건강하고 비교적 젊은 노인에게는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가 요구되지만, 고령의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조건 중의 하나로 1년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이면서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강도가 낮은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노인 개인의 현실과 고령인력

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지원일자리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교일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자의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이에 기반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